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개막

전국 2700개 주민자치센터 한마당 축제인 '제11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1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총장축제 행사장에서 개막했다. 참가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들이 각자의 특장점 등을 관람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방과후학교 정보 제공

오늘부터 포털 서비스

교육과학기술부는 방과후학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www.afterschool.go.kr)이 12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 단위로 흩어져 있는 방과후학교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광주일보 NIE교실 등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인증한 프로그램, 돌봄교실·지역아동센터의 위치정보, 감사 구인·구직 정보 등이 제공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

한편 최근 재심 과정에서 신군부가 같은 혐의에 다른 죄목을 적용하는 등 검거·기소·재판 과정에서 사법체계를 크게 훼손한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로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박씨 등 3명은 5·18 당시 모두 시민군이었으나 적용 죄목은 내란실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 위반, 계엄법 위반 등으로 각기 달랐다.

5·18 구속부상자회 이동계(54) 사무총장은 "당시 재판서류를 살펴보면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이 서로 다르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도 모르게 혐의를 적용하는 등 지금까지는 이해하지 못할 판결을 했다"며 "재심을 통해 이같은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날씨. 맑은 하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았다. 광주 9/22C, 목포 11/21C, 여수 13/22C, 나주 7/22C, 완도 11/22C, 구례 7/22C, 강진 7/22C, 예남 7/22C, 장흥 8/22C, 순천 7/21C, 영광 6/21C, 진도 9/21C, 전주 7/22C, 군산 7/20C, 남원 5/21C, 옥산도 16/20C. <오전> 바다, <오후> 바다, <주간날씨>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 18(목).

5·18 재심대상 절반이 '무죄' 받았다

당시 시민군 3명도 최근 무죄 판결... 현재까지 300여명 '명예회복'

신군부 검거·기소·재판과정 사법체계 훼손 사실 드러나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심 대상자 600여 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11일 5·18 구속부상자회,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1995년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5·

18 당시 구속돼 옥고를 치른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무죄결정이 잇따르면서 그 숫자가 3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문유석)는 재심을 신청한

고 박래풍, 손효근, 서형진씨에 대해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 등은 1980년 5·18 당시 시민군에 참여했다가 불합격 내란실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0여 일동안 광주교도소 등에 수감됐었다.

손씨는 "재심 결정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는 피해자들도 꽤 있다"며 "구속부상자회에서 연락이 와 재심

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첫 공판에서 선고를 결정할 문 부장판사는 "신군부의 쿠데타가 이미 현실정서를 파괴하는 내란행위로 결정된 만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은 현실정서를 수호하기 위해 정당행위를 한 것"이라며 "너 이상 재판의 의미가 없어 오늘 선고한다"고 밝혔다.

17억원대 의약품 리베이트

제약업체 대표·의사 100명 '쌍벌제' 적발

실문조사 대가를 주는 것처럼 꾸며 약 17억원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뿌린 제약업체 대표와 이를 챙긴 의사 등 100여명이 달마를 잡혔다. 쌍벌제 실시 이후 적발된 최대 규모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홍창 부장검사)는 전국 300여개 병원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 제약회사 대표 유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유씨로부터 500만~24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 등 병원 관계자 97명과, 중간에서 리베이트 금액을 가로챈 A사 영업사원 11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령회사를 차려 A사의 리서치 업무를 대행하는 척하며 53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로 B 업체 실제 운영자 윤모(39)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전문점 커피 하루 3잔 이상은 '위험'

커피인 함유량 높아 불안·두통 시달릴 수도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전문점 커피와 에너지음료를 하루에 3~4잔 이상 마시면 1일 권장섭취량을 초과해 인체에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소년(몸무게 50kg 기준)은 커피전문점 커피, 에너지음료, 액상커피, 캡슐커피를 1잔 이상 마시면 불안, 흥분, 두통 등 커피인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유통 중인 에너지음료, 액상커피, 커피

전문점 커피, 조제 커피, 캡슐 커피 등 77개 243개 제품의 커피인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품목별로 커피인 함유량이 최대 124~307mg(1회 제공량)에 이른다

고 나타났다. 이번 커피인 함유량 실태조사에 따르면 카페베네, 탐앤탐스 등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커피의 커피인 함유량이 에너지 음료(최고 207.4mg)보다 대체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전문점 커피 가운데 카페인 함유량이 가장 높은 것은 탐앤탐스에서 판매하는 카푸치노로 1회 제공량 당 카푸치노 함유량이 307.8mg(1ml 당 0.7mg)에 달했다. 22개 커피전문점의 카푸치노 평균 커피인 함유량은 137.3mg(1ml 당 0.5mg)였다.

카페라떼는 탐앤탐스 제품의 카페인 함유량이 189mg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베네(184.6mg), 그라찌에(168.4mg), 할리스커피(160.3mg)가 그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광주 아침 기온 9도 '쌀쌀'

12일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겠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담양·곡성·영광·장성·진도 9도 등 6~10도 안팎으로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12~14도 분포로 다소 쌀쌀하고, 낮 최고기온은 22~24도 분포로 포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12~14일)가 개최되는 영암군 삼호읍 일대는 대회기간 아침 최저 10~14도, 낮 최고 21~23도 분포로 경기 관람에 좋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한편 11일 광주(10.7도), 진도(11.2도), 광양(13.2도), 여수(13.7도) 등은 올 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

정시 경쟁률 15.98대 1

11일 2013학년도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15.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66명을 선발하는 이번 정시모집에는 모두 1055명이 지원해 지난해 경쟁률 13.4 대 1보다 높았다.

일반 전형의 경우 44명 모집에 1009명이 접수해 22.9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광주·전남지역 대학교 출신자 전형에서는 20명 모집에 45명이 지원해 2.25대 1을 기록했다.

1단계 합격자 발표는 다음 달 21일, 최종합격자는 12월 12일 조선대 홈페이지(http://ibhak-md.chosun.ac.kr)를 통해 발표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JNJ TOUR 정남진투어. 여행의 모든 것을 한번에! 정남진 투어에서는 제주도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1577-7616. Event 1: 2인 예약시 관광지무료쿠폰! 3인 예약시 렌트24시간 중형차급! 4인 예약시 아이스 뮤지엄 2매! Event 2: 선박 20% 할인! 배타고 가는 제주여행~! 일~목 149,000, 금~토 169,000, 한라산등반 1박2일 129,000. 일정안내: 1일차, 2일차, 3일차.